

성북구 교육 현황

2021년 8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상 속 코로나(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3%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일상 속 코로나(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은 '11월 말 국민의 70% 이상 2차 접종 완료 시점'이라는 응답이 52.4%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하루평균 100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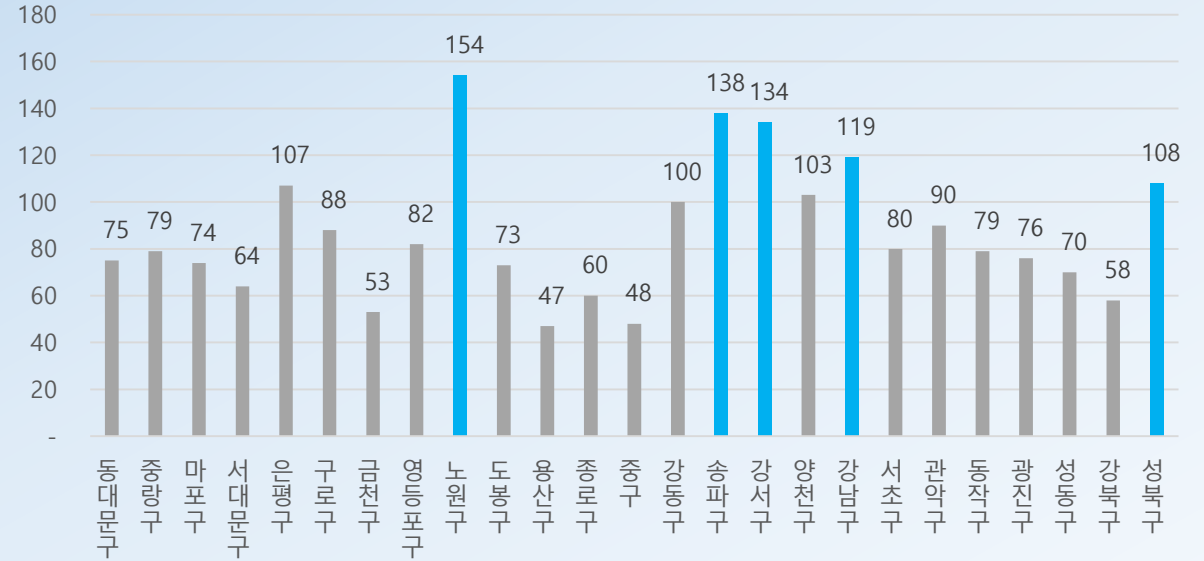
학교교육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개학을 앞둔 7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 반 기간 동안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함으로써, 비대면 교육의 질은 높아졌지만, 효과적인 교육 회복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21년 1학기 평균 등교율은 73.1%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유치원 89.6%, 초등학교 74.6%, 중학교 63.8%, 고등학교 72.0%의 평균 등교율을 보였다. 또한 2021년 1학기 학생 감염경로 분석 결과, '가정(48.7%)>지역사회(22.6%)>학교(15.9%)' 순이었으며, 학교는 지역사회 대비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정서·사회성 함양을 위해 2학기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9월 개학 시점부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등교가 이루어지고,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학급별로 3분의 2 안팎의 등교가 가능하도록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 학습에 새롭게 신설하였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 소재구별 학교 현황(2021. 4.)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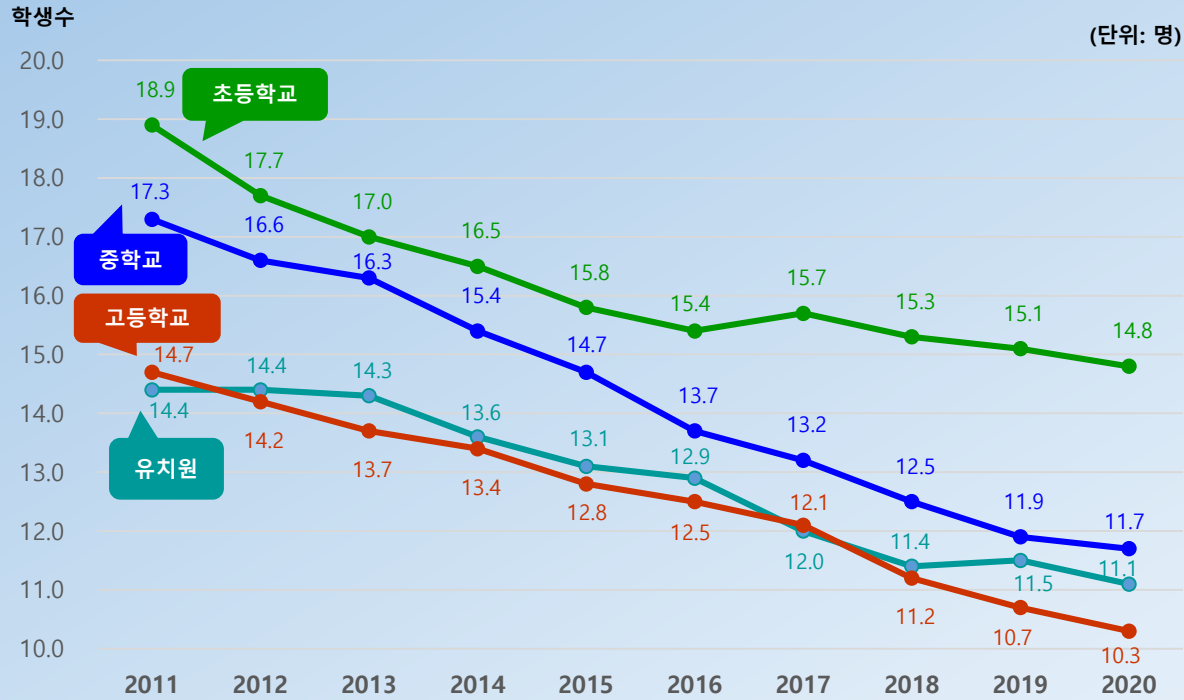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 성북구 교육여건 현황

서울교육통계 「2021년 상반기 학교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학교 수 총 787개교 중 **성북구 학교 수는 총 108개교로, 서울시 자치구 중 5위를** 차지했다. 성북구 관내에 유치원 46개,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3개, 특수학교 1개, 방송통신고 1개가 있다.

성북구 전체 학생 수는 총 41,753명으로, 유치원생 4,208명, 초등학생 19,628명, 중학생 9,510명, 고등학생 8,013명, 특수교육학생 84명, 기타교육학생 310명이다. 성북구 전체 편성 학급 수는 총 1,870개이며, 전체 교원 수는 총 3,39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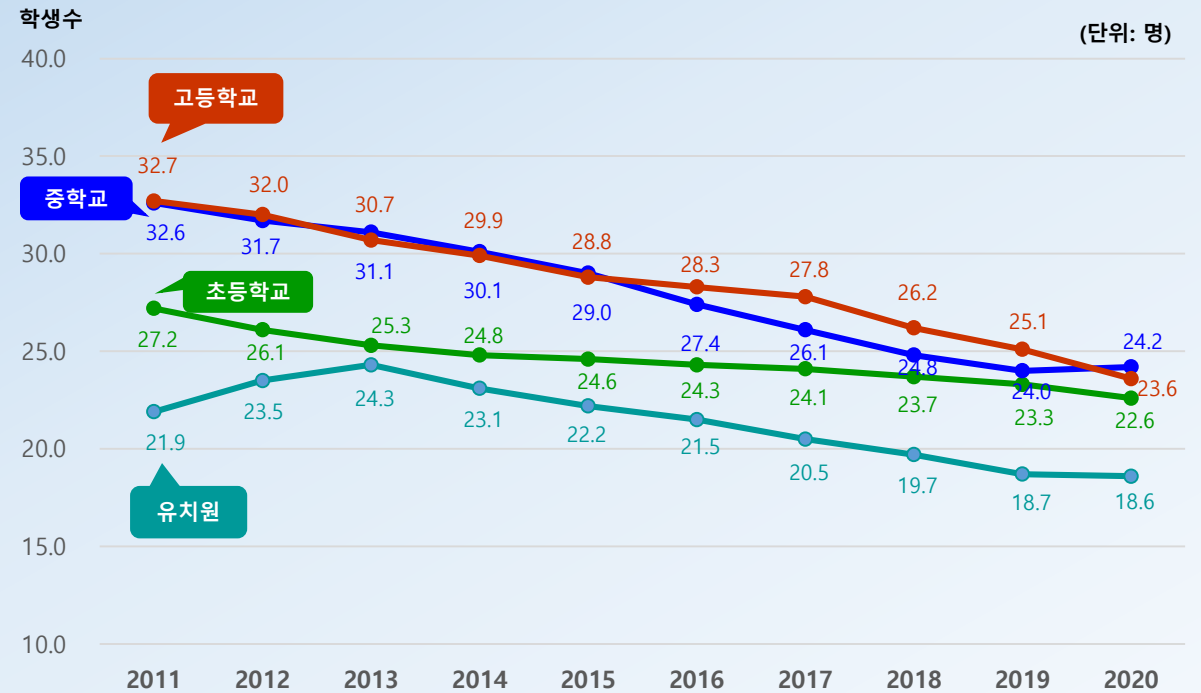
연도별 성북구 교원 1인당 학생수 변동 상황(2011~2020)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 교원 1인당 학생수(구별) 통계」에서 2020년 기준 **성북구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1.1명, 초등학교 14.8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10.3명**이었으며, 전년 대비 각각 0.4명, 0.3명, 0.2명, 0.4명 감소하였다. 성북구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서울시(14.3명)보다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11.9명, 10.6명)보다 적었다.

연도별 성북구 학급당 학생수 변동 상황(2011~2020)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시 학급당 학생수(구별) 통계」에서 2020년 기준 **성북구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8.6명, 초등학교 22.6명, 중학교 24.2명, 고등학교 23.6명**이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0.1명, 0.7명, 1.5명이 감소했고, 중학교는 0.2명 증가하였다. 성북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서울시(22.1명, 23.9명)보다 많았고, 고등학교는 서울시(23.7명)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9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성북구민의 월 평균 가구 교육비**는 50.3만원이며,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가 평균 95.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교육과 사교육 비용으로 나누어 보면 공교육 비용은 대학생(77.8만원), 사교육 비용은 고등학생(55.5만원)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했고, 돈암·길음 권역에서 교육비용 지출이 가장 많았다.

성북구민의 **공교육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5점인 '다소 만족' 수준으로, 만족도는 전년 대비 0.30점 상승했으며 상승 추세를 보였다. 종암·월곡 권역(7.07점)과 돈암·길음 권역(7.03점)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고, 정릉 권역(6.11점)에서 비교적 낮았다.

성북구민의 **공교육 시설 수준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92점인 '다소 만족' 수준으로, 전년 대비 0.98점 상승했으며 상승 추세를 보였다. 만족도는 돈암·길음 권역(7.33점)에서 가장 높고, 정릉 권역(6.40점)에서 가장 낮았다.

성북구민의 **공교육 교사 수준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4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이며, 전년 대비 1.01점 상승해 공교육 만족도 항목 중 만족도 상승폭이 가장 컸다. 만족도는 돈암·길음 권역(7.07점)에서 가장 높고, 동선·안암·보문 권역(6.46점)에서 가장 낮았다.

성북구민의 **공교육 접근성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8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이며, 전년 대비 0.73점 상승하였다. 만족도는 돈암·길음 권역(7.37점)과 종암·월곡 권역(7.37점)에서 높았고, 장위·석관 권역(6.29점)과 정릉 권역(6.02점)에서 낮았다.

성북구민의 **공교육 전반적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7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을 보였고, 만족도는 종암·월곡 권역(7.17점)과 돈암·길음 권역(7.15점)에서 비교적 높았고, 동선·안암·보문 권역(6.31점)과 장위·석관 권역(6.30점)에서 비교적 낮았다.

성북구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8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이었으며,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7.51점)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소질과 적성개발'(6.31점)이 가장 낮았다.

성북구 교육환경 안전도는 10점 만점에 6.45점으로 '다소 안전' 수준으로, 교육환경 중 '학교주변 교통환경'(6.70점)에 대한 안전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또래, 선후배 간 폭력, 집단 따돌림'(6.60점), '학교주변 먹을거리'(6.50점), '학교 내 미세먼지, 석면 등 유해물질'(6.26점),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6.21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안전도는 성북·삼선 권역(7.21점), 종암·월곡 권역(6.75점)에서 높았고, 15~19세(6.16점), 정릉 권역(6.14점), 동선·안암·보문 권역(6.00점)에서 낮았다.

청소년 복지 서비스 중에서는 '청소년 도서관 및 독서실'(42.8%)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시설'(40.7%), '여가를 즐기기 위한 취미 프로그램 활성화'(34.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서관 및 독서실'은 15~19세(45.3%)와 동선·안암·보문 권역(36.1%)에서, '체육시설'은 성북·삼선 권역(35.1%)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이전보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문화체험기회 확대', '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는 감소한 반면, '취미 프로그램 활성화', '교류의 장 마련' 요구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 우선순위**에서는 '학교 내 시설 개선'(30.2%), '학교 밖 시설 개선'(30.1%) 등 학교 안/밖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학교 내 시설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인식은 종암·월곡 권역(43.2%)에서 높았고, '학교 밖 시설 개선'은 동선·안암·보문 권역(45.5%), 초등학생 학부모(40.8%) 계층에서 많이 선택했다.

성북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다양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영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센터와 마을공동체가 협력하여, 원어민 강사를 통한 **'비대면 화상 영어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교육 플랫폼인 성북 **'e-스튜디오'**를 구축하여, 관내 청소년 및 마을 강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하는 관내 학부모 및 수험생 대상 **'대학입시설명회 및 학부모특강'**을 작년부터 유튜브와 ZOOM으로 비대면 병행 운영하고 있다.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찾아가는 토요일마을학교'**를 운영하며 매달 새로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D 가상공간 온라인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전공 탐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면서 현실과 가상공간, 학교와 사회, 가정의 공간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진화된 학습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교육이 변화를 맞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껏 외면해 왔던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아가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